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함께 문안 드립니다..

2018년도 어느덧 12월, 한 해를 돌아봄과 동시에 마무리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브라질 이민 역사상 유래 없는 교포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감사하며, 또한 묵묵히 나아가게 하심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얻게 될 영적, 시대적 통찰과 열매를 기대하며 저희도 역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1. '고아원과 학교'에서 '고아원을 학교'로...

은혜의 집은 지난 10년간 이뤄오던 주사역인 고아원을 접고, 병행하려던 마을(방과후교실)/직업(기술) 학교를 시작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준비하는 교육사역이 앞으로의 주사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고아원사역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원사역을 통해 이따빠비시 지역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가정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들고 각 가정들을 찾아가 기도하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많이 도전하고, 부모로서 말씀과 함께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자고 역설하지만, 찾아가는 것으로는 만남의 횟수가 적어, 아직은 적은 가정들 만이 자신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년 간 저희에게 있었던 어려움으로, 고아원과 교육사역의 병행을 원치 않던 법원과의 대립 때문에 더 이상 선교관을 고아원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의 모든 동네들을 파악하며 학교전도집회나 마을전도집회 등을 통해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에, 외부인의 출입까지 법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교육과 사역 방향의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2. 2018년 법정관리의 한해..

2016년에 이미, 선교관을 고아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담당 검사는 최소 직원으로 사역에 임하던 저희 부부를 직원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이유를 붙여 고소하면서 그 다음날로 장애아동 7명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이런 저런 비슷한 이유를 들어 고소장을 보내며, 직원 월급때문에 직원을 못 채용하면 물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병 주고 약 주는식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법이 요구하는 직원 수를 맞추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 그 때마다 그들의 반응은 더욱 견고해지는 권력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2017년 연말, 저희는 3년간의 기도 끝에 고아원을 접기로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2018년 1월8일 법원과 시청에 사역을 접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고 옮기

겠다는 이유로 법정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행동이지만 억압과 권력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습에 저희는 분하고, 당황스럽고, 건물에서 쫓겨난 듯한 기분과, 순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진 선교관을 이대로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4월 말까지 기도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하면서, 오히려 선교지를 다시 찾기 위한 권리 주장으로 고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검사들이 '시에서 필요하니까.' 아이들을 옮길 장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원하는(오랜) 기간 동안 건물(선교관)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 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5월까지 모든 준비와 서류접수를 한 이후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 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법원과 시청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생각보다 빨리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저희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 5개의 고아원에서 매년 하나씩 줄기만 하여, 저희만 남고 더 이상 나서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었는데 돌연 9월의 입찰공고를 통해 다른 다른 시에서 운영 되어지고 있는 고아원에서 입찰에 응하며, 아이들을 12월 안으로 옮기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물론 아직은 계속 기도 해야 합니다..

새로 입찰한 고아원이 70명의 아이들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시에는 이를 소화할 만한 집이나 건물이 없어 7채의 집을 세를 얻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만약 12월 20일까지 아이들을 옮겨가지 못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법원에서 저희 선교관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나오면 그때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또한 현재 28명의 모든 직원들을 동시에 내보내기 위한 월급 계산과 쌓여 있는 고소 건들, 깨끗하던 건물이 1년동안 남아난 유리창이 없고 문과 기물들의 파손 상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고아원 이 외의 사역들은 계속 될 것 입니다..

아이들이 옮겨가면서 맞이하게 될 2019년은 선교관의 청소와 보수공사로 시작됩니다. 또 교육사역의 장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장소 용도 변경 공사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또한 교육 사역에 필요한 서류, 기술-인적 지원, 장비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의 준비가 잘 진행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고아원 사역과 함께 하던 학교전도집회, 마을전도집회, 소년원전도집회, 노숙자예배, 복음으로 보금자리 짓기 등의 사역이 계속될 것입니다. 고아원 때문에 정지되었던 선교/말씀/기도 훈련원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 법, 직업연결 등을 돕는 공간도

새롭게 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년후 정규학교의 태동을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뜻있는 많은 분들과 교회, 기관들의 사랑 담은 기도와 후원과 섬김을 부탁 드립니다..

12월 한해를 결산하면서 작은 열매에도 감사하며, 기도로 세우시는 2019년 한해를 위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로, 가정으로, 섬기시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 12월 안으로 법정관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동안 만났던 아이들과 주변 동네 아이들과 가정들을 위한 복음에 기초한 교육 사역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 교육사역을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 인적, 물질적, 물리적 후원이 이어지도록..
- 아직 남아있는 법적 고소 문제들도 주님 인도하심을 통해 자동 소멸 될 수 있도록..
- 계획된 사역들이 사역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삶이 되도록..
-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유충선, 최인숙 선교사 올림